

외국인 담론 극복하기: 식모와 조선족 입주 가사노동자의 계급적 위치성과 이중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박소영*

Overcoming the Discourse of Foreignness: A Study on Class Positionality and Dual Identity of Korean Housemaids and Korean-Chinese Domestic Workers

Soyoung Park*

요약 : 본 연구는 식모와 조선족 가사노동자가 한국인 고용주와의 관계에 있어 유사한 계급적 위치성을 지니며 이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함에 주목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27명의 조선족 가사노동자와 고용주, 식모 고용주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본 논의는 내국인-외국인의 이분법적 담론에서 벗어나 단순히 외국인성(foreignness)이 아닌 여성 노동자가 가진 계급적 열악함이 고용주와의 관계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식모와 조선족 여성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를 떠나 새로운 사회로 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스스로의 노동 가치를 향상시키는 생존 전략을 취해 왔다. 그들은 시골 출신, 저소득, 낮은 수준의 교육 등 여성 노동 역사 상에서 유사한 노동 지위를 지녔으며 이주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이 소속문화, '그곳'에 얽매이고 평가되는 초지역적 정착(translocal anchoring)을 겪는다. 또한 한국인 고용주는 식모와 조선족 가사 노동자의 도덕성과 지적 능력을 그들이 가진 계층 차이에 근거해 평가한다. 이러한 일련의 낙인 찍기 과정은 고용주가 가사노동자를 위협에 처한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애정과 보호를 받아야 할 이중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고용주들은 그들이 도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요리나 언어를 가르치는 등 문화적으로 교육하고 장기적인 생애 계획을 조언해주기도 한다.

주요어 : 이주의 여성화, 공간 재배치, 초지역적 정착, 조선족 가사노동자, 식모

Abstract : This paper suggests how Korean housemaids, called *Sikmo*, and Korean-Chinese migrant domestic workers have similar class positions and therefore form a dual identity in their interactions with female employers. Through spoken stories of the experiences of 27 females from Seoul, including Korean-Chinese domestic workers, Korean housemaids, and their employers, this research effectively overcomes the dichotomous discourse of natives versus foreigners. Instead it suggests the new interpretation that it is not foreignness but class inferiority of the domestic workers that plays a key role in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employers. Korean housemaids and Korean-Chinese domestic workers, both groups of whom are migrant workers, have developed coping strategies to enhance their labor value by spatially relocating themselves from their home society to a new society. They possess a similar labor status in women's history, being of low income, low education, and rural births. Consequently, these women experience 'translocal anchoring,' meaning their identities are intertwined with that of their home societies, and employers perceive the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places. The Korean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M.A.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y90park@snu.ac.kr

employers perceive that the domestic workers' morality and intellectuality are inferior based on their class differences. This stigmatizing process leads employers to regard domestic workers as ambivalent people, not only threatening outsiders but also objects of pity, needing love and protection of their employers. The employers educate them culturally, teaching them skills to survive in the urban environment. These skills include cooking and language, in addition to advice on long-term plans to blend into society.

Key Words : feminization of migration, space relocation, translocal anchoring, korean-chinese domestic workers, korean housemaid

1. 서론

조선족 가사노동자는 1960년대 식모와 유사한 노동 지위를 접하면서 위험한 이방인으로써의 가사노동자를 한국 역사 속에 재등장 시키고 있다. 70년대 후반에 식모가 역사 상에서 사라지고 입주 노동자보다는 시간제로 일하는 내국인 파출부 노동으로 전환되면서 24시간 입주체제의 가사 노동 서비스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맞이하는 듯 했다. 하지만 한중수교와 함께 조선족 여성이 이주해 오면서 24시간 가사 노동 서비스를 채우기 시작했다. 고향에서 잉여 인력에 해당했던 식모와 조선족 여성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 생활 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본인의 노동 가치를 향상시켰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 고용주와의 계층, 계급 차이가 있어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과 도덕성이 엷매이고 규정되는 경험, 즉 초지역적 정착(translocal anchoring)을 겪는다. 한국인 고용주는 식모와 조선족 여성의 낮은 계층 지위와 공산주의, 혹은 전근대적 문화를 토대로 그들의 도덕성과 지적 능력 또한 열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조선족 가사노동자는 과거의 식모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거리를 두며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위협적인 존재인 동시에, 애정과 동정의 대상이자 고용자의 문화 지도가 필요한 위험에 처한 이중적인 인물로 정체성이 형성된다.

대다수 국가와 국내 선행 연구는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현지 여성과 이주 여성으로 분리하는 이분법의 분석 틀을 고수해 왔다. 실제로 이주 여성은 주로 입주하여 주인과 함께 생활하는 반면 현지 여성의 경

우 시간제 노동자로 고용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흐름은 일면 타당한 면이 존재한다(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2003: 64-65; 박홍주, 2009). 하지만 이는 단순히 외국인과 내국인의 이분법적 사고를 낳았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 조선족 가사노동자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조선족이기 때문에, 혹은 중국 문화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 단순한 논리가 지배적 이어 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내국인이든 외국인인든 간에 그들이 이전에 속했던 출신지역의 속성과 계급 차이가 고용주와의 관계와 정체성 형성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 본 논의의 주요한 주장이다. 기존 연구 흐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 국내의 식모 사례는 외국인-내국인의 이분법적인 가사노동자 논의에서 벗어나 고용주와의 계급, 계층 차이를 강조하는 데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60년대 한국의 식모는 고용주와 같이 같은 내국인이긴 하였지만 시골, 저소득, 낮은 수준의 교육이라는 계급 차이가 있어 향후 위험한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조선족 가사노동자와 유사한 위치성을 공유한다.

한국의 식모와 조선족 여성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시적 접근에서 이주 가사노동자의 공간적 재배치와 정체성 형성 과정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 주제이다. 해외의 연구들은 공간적인 재배치가 단순히 이주여성이 살아가는 터전이 바뀐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고용주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란(Lan, 2003)은 대만인 여성 고용자가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민족 위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모성을 다해 가사노동 여성을 보호하는 어머니로 역할 하기도 하며 때로

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믿지 못할 외국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다만, 본 논의에서는 단순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고용주와 갈등을 빚고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식의 외국인-내국인의 이분법적인 도식에서 벗어나 식모와 조선족 여성이 가진 계층, 계급 속성이 재배치된 공간 속에서 정체성을 새로 부여 받게 만드는 기제임을 강조한다. 즉, 그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공간을 재배치한 결과 농촌과 도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자신이 가진 기존의 정체성과 이주 환경이 갖고 있는 특성이 충돌하는 갈등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우선 이주의 여성화와 국내 가사노동자 선행 연구를 분석한 뒤 이주 가사노동자를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시선에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이주 가사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미시적 관계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60년대 식모의 역사적인 담론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식모와 조선족 여성이 공간 재배치를 통해 잉여와도 같았던 노동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었던 반면 고용주와의 관계 속에서 정착지의 신 문화와 출신지역의 구문화 간의 연쇄 충돌이 일어남을 밝힌다. 이때, 지역(region), 계층(class), 제도(system) 측면에서 분명한 지역간 위계가 존재함을 명시한다. 셋째, 이주를 감행한 뒤 그들의 소속문화와 정체성 양상이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면서 “낙후된 도덕성”, “지적 능력의 결핍”, “예측 불가능성에 기반한 위험성”으로 이주 가사노동자의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정립됨을 파악한다. 특히 그들의 인격이 낙후되고 불완전한 것으로 낙인 찍히면서 이주 가사노동자가 단순히 착취당하는 피해자가 아닌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존재이면서도 고용자의 감정적인 동정과 문화 지도가 필요한 이중적인 인물로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점을 밝힌다.

2. 선행 연구 검토

1)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 가사 노동자 연구

식모와 조선족 가사노동자를 학문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현대 젠더 연구의 화두인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주의 여성화는 근래 여성 이주의 증가를 의미하며 부유한 국가들에서 성 산업, 가사 노동 시장을 포함한 저임금 서비스업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이주 여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assen, 1998). 사센(Sassen 1998; 2000)은 소득수준이 높은 전문직들은 대도시의 중심에 모이는 경향이 있으며 저임금 여성 서비스업의 경우 많은 부분이 이주노동자들로 충족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주의 여성화’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주의 여성화는 크게 거시적, 미시적 접근이 있으며 본 논문은 특히 미시적 접근에 주목해 기존 한국에서 이뤄지던 가사노동자 논의에 기여하고자 했다.

거시적 접근에서의 이주의 여성화는 현상의 작동 원리와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으로 정치경제학적인 분석이 주를 이루는 반면, 미시적 접근에서는 이주여성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과정과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서술한다(정현주, 2008). 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호싯드(Hochschild, 2000)는 돌봄의 새로운 국제분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송출국의 만연한 가난뿐만 아니라 수용국가의 돌봄 노동자 공동화 현상이 전 세계적 여성 이주화를 촉진한다고 분석하였다. 고도로 산업화가 진전된 사회에서는 각종 가사일을 분담할 이들이 필요하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를 주변국가의 저임금 여성 이주자에 의해 충당하고 있다(Hochschild, 2000). 특히 이에 대해 사센(Sassen, 2002)은 ‘생존의 여성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개발도상국의 일상에서 가난과 실업이 세계화 속에서 심화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생계 책임자로 역할을 한다고 논하였다. 사센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도시의 형성이 진전되고 개도국의 외화벌이 욕구가 강해지면서 선진국의 서비스분야 업종에 취직하기 위해 이주의 여성화가 촉발된다. 이는

조선족과 식모 담론에서 한국과 중국, 도시와 시골간의 역학관계와 일치한다. 실제로 동북 3성의 농촌 환경이 상대적으로 궁핍해지고 서울의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조선족 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메커니즘을 밝히기보다 고용주와의 관계나 정체성 형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시적인 연구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미시적 접근에서 특히 이주 가사노동자 문제와 그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 주제여 왔다. 많은 연구들은 공간의 재배치가 단순히 살아가는 터전이 바뀔 것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란(Lan, 2003)의 연구에서는 필리핀 이주 가사노동자와 대만인 여성 고용자가 상호 경계 작업을 통해 서로의 위치와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행동하는지를 분석했다. 또한 고용자만큼의 영향력은 아니더라도 필리핀 여성 또한 민족적 서열에 저항하느냐 순응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규정된다. 특히 란은 위계 설정이 집안의 공간 사용에 어떤 영향을 주고 행동을 제한하는지를 분석해 가정의 미시정치(micropolitics)를 포착하는 데에 성공했다. 반면 앤더슨(Anderson, 2007)은 영국 고용주 여성들의 인터뷰 자료를 통해 출신 국가가 다르다는 차이점은 고용주가 이주여성을 가사노동자로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질감과 그에 수반된 외국인성(foreignness)이 있기 때문에 이주 여성들을 가사노동자로 죄책감 없이 잘 부릴 수 있다. 심지어 고용주 여성들은 스스로를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직업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그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권력 관계나 착취를 외면하게 된다.

선행 연구들은 내국인-외국인의 이분법에 주목한 반면 이주 가사노동자와 현지 가사노동자와 상관없이 고용주와의 계층, 계급 차이와 같은 본질의 간극이 정체성 형성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의는 한국의 사례인 식모를 이주 가사노동자 논의에 가져 와 기여하고자 한다.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은 출신 국가에 대한 편견과 위계 설정이 이주 가사노동자가

고용주와 갖는 관계와 정체성 형성을 결정짓는다는 식의 논의가 주류여 왔다. 란(Lan, 2003) 또한 필리핀 여성 노동자와의 인종, 민족 계급에 따라 고용 여성과의 관계가 설정되며 그들의 정체성은 국가, 민족간의 위계를 받아들이느냐, 저항하느냐에 따라 규정된다고 주장한다. 앤더슨(Anderson, 2007) 또한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고용주로 하여금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죄책감을 떨쳐 낼 수 있는 면죄부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아클란(Aklan, 2007)은 터키의 현지인 가사노동자와 이주 여성 노동자를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구분하면서 시골 출신의 현지인 가사노동자는 고용주의 일을 지극히 직업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반면 이주 여성은 좋은 부모와 주부가 되고자 감정적으로 접근한다고 보았다. 아클란의 논의에서 1950년대부터 이촌 향도한 가난한 터키 여성들을 도시의 부유한 여성들이 고용하는 현상은 마치 한국 60년대 시골출신의 식모와 도시의 고용주 간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위의 논의들은 모두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사 노동자의 정체성 형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현지인 가사노동자와는 뚜렷한 대비를 하며 질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의 주체라고 단정짓는다. 이에 본 연구는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모 담론을 결부시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의 가사 노동자 연구와 식모-조선족 이주 여성 담론의 적절성

한국에서 가사노동자의 일상을 분석한 선행 연구 또한 내국인에 의한 가사 노동 시장과 외국인으로 채워진 노동 시장을 분리하여 논의가 이뤄져 왔다. 특히 조선족 가사노동자는 시간제로 일하는 파출부와 대비되면서 내국인-외국인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연구 전통을 지속해 왔다(이혜경, 2004; 박홍주, 2009). 70년대 이후 가사 노동자에 대한 근무 처우가 개선되고 기혼 여성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가 제공되면서 24시간 입주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졌다(강이수, 2009). 공적인 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여성들은 이주여

성을 소위 “수입”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셈이다(박흥주, 2009). 이러한 학문 조류에 따라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조선족 여성 이주자가 파출부가 채우지 못한 가사 노동 서비스의 공백을 메운 존재로 부각되었다(김경희·강은애, 2006). 자연스레 조선족 가사 노동자의 논의는 파출부와 역사적인 연속선 상에 있는 존재로 규정되었으며 내국인인 파출부와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박흥주(2009)는 입주 가사노동자의 80% 이상을 조선족 가사노동자가 차지하고 있어 한국인 파출부로 이뤄진 시간제 가사 노동 서비스와 외국인으로 구성된 입주제 서비스가 질적으로 분리되었다고 서술한다. 더불어 이주영(2005)은 내국인 가사노동자와 조선족 가사도우미는 서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다르다고 강조한다. 한국인 파출부는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만들기 위해 부차 수단으로 가사 노동 서비스를 하는 반면, 조선족 가사도우미는 체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사 노동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족 가사노동자의 미시적인 정체성 형성과정과 고용주와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공식화된 노동에 연구가 초점이 맞춰져 왔기 때문에 조선족 가사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나 일상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박흥주, 2009). 그 중에서도, 손여경과 이송이(2011)의 연구는 조선족 가사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미시적인 관계와 갈등을 포착하였다. 해당 연구는 일하는 여성이 조선족 가사노동자를 고용한 뒤 갈등을 빚는 원인 중 하나로 서로 다른 나라 문화를 꼽고 있다. 한국인 고용주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가사노동자들이 위생관념이 부족하며 이질적인 음식 문화를 갖는다고 보았다. 특히 이들이 “연변 말투”로 불리는 독특한 말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언어습득 면에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2005)은 조선족 가사노동자들이 스스로 다름을 숨기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 고용주와 한국 자체의 문화를 배우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 고용주가 조선족 입주 가사노동자의 외모와 위생상태를 조선족 사회의 열등성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러

한 문화 논리를 받아들이고 조선족 여성들이 외모를 치장하기도 했다.

식모는 시골에서 온 이주 가사 노동자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가사노동자와는 다소 독립적인 역사 맥락에서 논의가 이뤄져 왔다. 식모는 한국전쟁 이후와 1960년대 산업화에 부각된 주변부 여성인력으로 주로 15에서 19세의 농촌 출신 소녀들이었다(김원, 2004). 선행 연구들은 식모를 비교 분석할 때 보통 같은 저소득 계층의 한국인 여성과 유사한 위치성을 주장해 왔다(김정화, 2002; 이임하, 2003; 강이수, 2009). 김정화(2002)는 버스안내양과 식모가 60년대 당시 무작정 상경한 시골 소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 이들이 윤락에 빠지기 쉬운 존재로 도시 사람들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고 서술한다. 이임하(2003)의 연구에서도 전쟁 후 생겨난 여러 여성 인력들을 비교하며 그 중에서도 식모는 여성노동 가운데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라고 규정한다. 전쟁의 영향으로 남성이 부족해지면서 여성이 노동에 앞장섰으며 식모는 전후 시대에 우후죽순 생겨난 가난한 여성 인력의 유형 중 하나였다. 더불어 강이수(2009)는 60, 70년대의 식모와 80, 90년대의 파출부를 대비하면서 식모의 공백을 대체한 주체가 한국인 파출부임을 강조한다. 특히 가사노동자의 노동 시간과 임금이 표준화되면서 식모 시절의 봉건 위계가 많이 완화되었던 점은 해당 연구가 두 노동자 주체를 비교하는 주요 포인트가 되었다. 한국에서 이뤄진 식모 담론들은 60년대의 여타 봉건적인 여성노동과 유사한 위치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거나 같은 한국인 인력인 파출부와 비교되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식모 논의는 그것이 가진 학문 기여성에도 불구하고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 흐름에서는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국인-외국인의 이분법적 분석 틀을 극복하고 이주 여성노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식모와 가사 노동자를 같은 위치성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미시적 연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 받고 정체성을 규정 받는다는 쪽에 주목한 반면, 식모의 사례는 정체성 형성에 있어 출신국가보다는 “고용주와의 계급, 계

층 차이가”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주 여성은 새로운 공간에 이주했더라도 그들이 고용주와 대비해 갖는 계급 괴리로 인해 자신의 소속문화에 끊임없이 평가받는 초지역적 정착(translocal anchoring)을 겪는다. 식모와 조선족 여성이 시대를 초월해 유사한 위치성을 지녔다는 전제는 그들의 계층, 계급 특성이 매우 흡사했다는 점에 기반한다. 그들은 저소득의 시골 출신에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고향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외지의 돈을 벌어 오거나 생계의 부양자로서 도시로 이주를 감행했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인 인력이건 외국인 인력이건 간에 두 주체는 고용주와 현저한 계층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다소 부당한 정체성을 부여 받곤 한다. 특히 한국인 파출부와는 달리 24시간 입주제로 일한다는 직업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고용주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단순히 피고용인이 아닌 좀 더 심화된 차원의 관계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3. 연구 자료와 방법

본 연구는 한국여성과 조선족 여성을 포함한 총 27명을 대상으로 비공식적 인터뷰와 심층면접이 자료 취득의 중심이 되었으며 그 외 문헌연구, 답사 및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문헌연구와 관련해 한국자료와 중국자료 양방을 이용해 균형 잡힌 분석을 추구했다. 중국 자료로는 한국과 조선족 사회의 화두를 다룬 신문 기사를 올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일반 조선족들이 자유로이 토론하는 예문연변통신 사이트를 분석하였으며, 한국 자료로는 조선족 여성과 식모가 이주 전과 이주 후에 달라진 삶의 경험과 관련된 학술지와 서적을 살펴보았다. 특히 여성 노동 역사를 다룬 기존 한국 자료에서는 조선족 여성과 식모 담론을 각기 독립된 맥락 속에서 논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식모와 조선족의 문헌을 동일 분석 선 상에 놓고 이들이 초지역, 초국가적 이주를

감행한 뒤 한국 여성 노동의 역사 맥락 속에서 어떻게 비슷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추적하고자 했다. 현지 답사 및 참여관찰에 있어 조선족과의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 4월 한 달 동안 서울 구로구 소재의 중국동포 교회와 신앙 교육원, 무료 진료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였다.

한국인 인터뷰 응답자는 크게 조선족 가사노동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한국 여성, 식모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한국 여성과, 현재 가사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선족 여성으로 분류된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눈덩이 식 표본 수집 방법을 이용해 만났으며 논문에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가명 처리가 된 결과이다. 인터뷰는 2번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2014년 3월 16일부터 2014년 6월 14일의 약 2달의 기간 동안 조선족 여성 6명, 조선족 가사도우미의 고용 경험이 있는 한국 여성 18명, 식모 고용 경험이 있는 한국 여성 3명을 인터뷰하였으며 2015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2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대다수의 인터뷰 응답자를 한국인 여성 고용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가 고용주에 의해 규정되거나 심지어 강요되는 정체성 형성 과정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심층면접 시간은 1인당 총 30분에서 1시간 가량 소모되었고 친밀감이 두텁게 형성된 조선족 2명과 한국 여성 4명에 한해 2시간 내외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후 추가적으로 질문이 발생할 경우 전화 인터뷰를 시행해 자료를 구득하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즉석에서 전사되었으며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 인터뷰 과정을 보조했다.

인터뷰 대상이 된 한국 여성 21명은 소득수준, 거주지 배경, 연령 위계의 존재 여부에 있어 공통점을 지녔다. 첫째, 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했다. 조선족 고용 경험이 있는 한국여성들은 가사노동자에게 매월 160만원에서 200만원의 봉급을 주었으며 스스로를 중상류층으로 정의할 만큼 소득수준이 좋았다. 식모를 고용했던 여성들 또한 지주의 딸로써 풍족한 삶을 영위했다고 응답했다. 둘째, 한국인 고용주는 공통적으로 서울과 부산 도심을 포함한 도시의 생활환경, 피고용주는 동북 3성과 한국 시골이라는 전원적인 성장배경을 지녔다. 셋째, 이들은 모

두 피고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뚜렷한 연령 위계가 존재한다. 식모 고용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식모보다 20~30세 정도 많았던 반면 조선족 고용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2명의 응답자를 제외한 16명 모두가 고용한 조선족보다 어렸다. 이는 식모-한국 여성간에는 모성관계(maternalism)가 강화되는 반면, 조선족-한국 여성에서는 모성관계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차이점으로 부각되었다.

인터뷰에 응한 조선족 가사노동자 6명은 중국에서의 거주지 배경, 이주 전 생활수준, 학력, 직업 경력에 있어 공통점을 공유했다. 첫째, 인터뷰 응답자는 모두 조선족 밀집지역인 중국 동북 3성(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의 전원지역에서 일생을 보냈다. 이 중 4명은 길림성, 2명은 요령성 출신으로 모두 한중수교가 체결된 1992년 이후로 한국 이주를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령성에서 슈퍼를 운영했던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응답자가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 셋째, 이들의 최종학력은 모두 초등학교 졸업에 해당한다. 인터뷰 대상 한국 고용주가 3명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대학교 졸업이었던 것과는 대비되며, 예외적으로 6명 중 1명만이 중국에서 고등학교 학위를 수료하였으나 그럼에도 중국 본토에서도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들은 가사노동자라는 단일한 직업 군에 전문성을 가지고 소속되기 보다는 식당, 영세 회사, 간병 등 저소득 직장에서 순환적으로 근무한 경험이 존재했다.

4. 식모와 조선족 여성의 공간정치:

초지역적 공간 재배치와 문화 충돌 경험

1) 식모와 조선족 여성이 걸어 온 공간 재배치의 역사

식모와 조선족은 자신이 머물던 지역사회를 떠나 새로운 지역사회로 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스스로의 노동가치를 향상시키는 생계 전략을 취해 왔다. 그들

은 각기 한국의 가난한 농촌과 동북 3성의 전원적인 삶에서 잉여 노동력 혹은 값싼 인적 자원으로 취급되었다. 시골의 어린 소녀들은 압박적인 빈곤 속에서 밥을 축내는 존재로, 동북 3성 속 조선족 여성은 70년대의 개혁개방 이후 보조 노동력으로 전락하였다. 주변부 노동에 해당했던 그들에게 있어 이주를 통해 기존의 출신지역을 벗어나고 도시와 같이 새로운 환경으로 공간을 재배치하는 이주 행위는 살기 위해 필요한 생존 전략이었던 것이다.

60년대 당시 15-19세 농촌 여자아이들의 초지역적 이주를 촉발한 배출요인으로는 크게 저곡가 정책에 따른 피폐한 농촌 경제와 가족 구성원 내의 성차별 생존전략에 있다. 그 당시 정부에서 도시위주의 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한 정책의 결과로 곡물의 가격이 곤두박질 쳤고 농촌의 생계는 더 곤궁해 졌다. 대도시로 향하는 거대한 이촌향도 현상과 더불어 당시 서울에 홀몸으로 상경하는 여성의 절반은 15에서 19세의 어린 아이들이 차지할 정도였으며(김원, 2004) 당시 설문 조사 결과 1,130명의 상경 여성 중 절반은 식모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화, 2002). 당시 어느 정도 경제력이 보장된 가정이라면 식모를 두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다(강이수, 2011). 다음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식모를 고용했던 여성의 인터뷰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식모가 각 집마다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때 시골에서 올라오던 애들이 엄청 많아서 누구든 마음만 있으면 식모를 집에 데려왔지. 옆집에도 앞집에도, 우리 집만 하더라도 다 합하면 식모를 다섯 명 정도 들었으니깐[2014.06.12, 최명숙(가명)].

더불어 농촌에 거주하던 가족들의 남녀차별의 생존전략은 가계 지출을 최소화하고 남아 위주의 상승 전략을 취하기 위해 어린 소녀들을 도시지역으로 방출시켰다. 일반적으로 가부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시골 가구에서는 생계 위협을 받게 되면 딸의 생애를 적극적으로 수정해 극복하고자 한다. 절대적 가난의 경우 딸의 학업을 중단하거나 노동시장에 이른 나

이에 방출하고 최종 수단으로 결혼을 지연함으로써 압박적인 생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했다(김수영, 2001). 또한 절약된 자본이나 딸이 가져다 준 자금을 통해 집안의 장남에 집중된 투자를 하여 남성위주의 신분상승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김원, 2004). 즉, 그 당시 식모의 공간 재배치 전략은 어린 여성 스스로의 노동 가치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에 만연하던 빈곤의 딜레마를 딸의 희생을 통해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했다.

식모의 초치역적인 이동은 그들이 농촌 잉여인구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일꾼으로 탈바꿈하도록 도왔지만 인력의 과도한 공급 현상은 당시 낮은 여성 인권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한국 가정 속에서 노동의 보조인이자 감정의 소모품의 양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노동력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가정 내에서 상품화되고 종과 같은 지위로 전근대의 신분질서에 얽매인다. 이는 식모 계층이 1930년대 전통적 신분계급이 해체된 지 불과 30년만에 발생한 최초의 가사노동자였고 종 신분의 지위가 식모에게 까지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실제 식모들은 가정 내 낮은 인권의 영향으로 수많은 가정폭력, 성폭행, 살인 등의 가정 범죄에 노출되었다(김원, 2005). 아래의 인터뷰는 과공급 상태였던 식모 집단이 당시 여러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취약한 위치를 점했던 사실을 보여준다.

집안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식모는 건드려도 된다고, 종처럼 생각했지. 불쌍한 금자. 집에 자주 왕래하는 친척 형제들이 애를 (성적으로) 건드린 적이 있었어. 나한테 올면서 얘기하러 왔어 [2014.06.12, 최명숙(가명)].

당시 사회 분위기라는 게 식모 지위가 엄청 낮았지. 집집마다 식모가 너무 많고 또 개들이 다 집 속에 감춰져 있고. 그러다 운 없게 임신 되면 아이 낳고 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 요즘으로 치면 성폭행 당한 건데 말도 못하고 사회적 분위기나... 참 안됐어 [2014.06.14, 김지미(가명)].

70년대 후반에 접어들고 많은 기혼 여성에게 다양

한 취업기회가 제공되면서 한국의 가사 노동 서비스 산업은 과도기를 맞았다. 강이수(2009)에 따르면 90년대 중반까지 가사서비스 산업은 입주 노동자보다는 시간제로 일하는 파출부 노동으로 전환되었다. 식모와 고용주 간의 관계가 다소 전근대적이고 위계적이었던 것과 달리 시간과 임금이 표준화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현재 조선족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한미진(가명)은 “조선족 여자들이 지금처럼 가사도우미를 많이 하기 전에는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였다.”라고 회상했다. 특히 그는 시간제로 일하는 한국인 파출부를 고용하기보다는 24시간 동안 집안일을 돌볼 수 있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언급했다. 식모가 점차 사라지고 2000년대 조선족 여성 인력이 대거 들어오기 전까지 국내 가사서비스의 시장은 특히 입주 서비스에 있어 부족한 인력에 시달렸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가사노동자의 처우를 개선시킬 뿐 아니라 고용 가정 내 지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한국 여성들은 더 이상 식모처럼 권위 관계에 종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었으며 일정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강이수, 2009). 특히 이들은 입주보다는 자신의 가정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를 선호하였다(신경아, 2007).

식모가 사라지면서 크게 위축되었던 입주 가사노동자 시장은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여성이 이주해 오면서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집안에서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입주 가사노동자의 경우 80%가 이주 여성이며 그 중 대다수의 비율을 조선족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강이수, 2009). 조선족 여성의 초국가적 이주를 발생시킨 가장 큰 배출요인은 한국의 식모 여성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이며 제도 상의 도움 또한 그들의 이동에 힘을 실었다. 1978년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개혁 개방은 많은 조선족 여성들을 국가 경영 조직에서 퇴출시켰으며 도시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주변부 인력으로 전략한 조선족 여자 대다수는 농업, 콩나물, 김치와 같은 음식 관련 장사나 보따리 장사에 종사하였다(리복순, 1994; 이해웅, 2005). 다만 가족 내의 남성중심의 생존전략 제도가 식모 집

단의 이주를 촉발했던 것과 달리, 조선족 여성의 경우 1992년 한중 수교라는 국가 제도가 그들의 한국행 진출을 활발히 유도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점을 보인다(강진웅, 2012).

국경을 넘나드는 조선족 여성의 공간 전략은 스스로를 중국 농촌의 저소득 노동인력에서 현대 한국 입주 가사노동자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일꾼으로 바꾸는 데에 성공시켰다. 그들이 한국의 가사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포섭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한국문화에도 익숙하다는 점이 가장 크다. 실제 인터뷰에서도 손은실(가명) 응답자의 경우 “한국어를 쓰는 게 조선족의 최대 강점이다”, “내가 아는 사람은 필리핀 사람을 쓰는 걸 봤는데 나는 그렇게 못할 거 같다. 한국어를 잘 못하지 않느냐”라며 한국어 구사능력이 매력적인 고용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표시했다. 조선족 가사노동자들은 이제 한국과 중국간의 환율 차에 힘입어 중국에 거주하던 때에 비해 임금을 평균 10-20배 이상 받을 수 있게 되었다(김은실 등, 2006).

식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조선족 여성의 이주는 가사노동 시장을 양적으로 팽창시켰으며 특히 조선족 가사 노동자간의 인맥 네트워크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1970년대 후반에는 많은 예비 식모 집단이 고도의 산업화와 함께 공장인력으로 흡수되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수요에 비해 가사노동자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귀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강이수, 2011). 90년대 조선족 여성의 유입은 이러한 가사노동자의 품귀현상을 해소하고(강이수, 2011) 현재 공식, 비공식 입주 가사노동자 시장의 절대적인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입주 가사도우미 시장은 현재 조선족 여성들의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

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조선족 여성들이 유연하게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현재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인 가정의 노동 조건의 좋고 나쁨을 저울질하며 서로간의 정보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추세이다. 다음은 길림성에서 온 김필화(가명) 응답자의 언급으로 조선족 네트워크를 통해 유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주 가사노동자 시장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우리가 아쉬울 게 뭐 있나요? 가정부 일은 이제 다 우리(조선족)가 해요. 나는 한국인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떠나서 더 좋은 다른 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나는 한국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불만 같은 거 없어요[2014.04.12, 김필화(가명)].

2) 식모와 조선족 가사노동자가 고용주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4중 문화 충돌

조선족과 어린 식모의 공간 재배치는 경제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노동 가치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정착지의 신(新) 문화와 출신지의 구(舊) 문화와의 연쇄 충돌을 낳았다. 첫째, 식모와 조선족이 거주했던 시골 문화와 도시 문화간의 지역 충돌이 존재한다. 둘째, 식모, 조선족 여성과 그들을 입주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만큼 경쟁력이 되는 한국인 고용주간에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위계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경제적 계층 차이는 학력이나 교육 수준 문제와 맞물려 복합적인 계급 충돌로 발현된다. 셋째, 그들의 공산주의의 생활방식은 한국 대도시의

표 1. 식모와 조선족 가사노동자의 문화 충돌과 그 유형

	식모	조선족 가사노동자	한국인 여성 고용주
지역(region) 충돌	시골		도시
계층(class) 충돌	저소득, 저학력		고소득, 고학력
제도(system) 충돌	공산주의식, 혹은 전근대의 생활양식		자본주의 생활양식
민족문화(ethnicity) 충돌		중국 문화	한국 문화

극한 자본주의와 문화 충돌을 경험한다. 본 논의에서는 과거 60년대의 한국 농촌은 아직까지 봉건의 잔재가 남아있어 자본주의 요소보다는 공산주의식 생활 방식(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생활)의 잔재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족 가사노동자는 이에 더불어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충돌이라는 민족성 충돌을 추가적으로 경험한다.

조선족 가사노동자와 한국인 고용주 사이의 민족 문화 충돌은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고찰되어 왔다(이주영, 2004; 손여경, 2011).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 받거나 갈등을 겪는다는 내국인-외국인 이분법에 초점을 두어 왔다. 손여경(2011)의 논문에서는 고용인과 조선족의 불화가 음식문화, 위생관념과 같은 '생활관습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주영(2004)의 연구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열등의식의 차이 때문에 한국인 여성과의 갈등이 촉발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들은 좁은 범위에서 표 1의 '민족문화(ethnicity) 충돌'에 논의를 국한시키고 있었으며 여타 지역, 계층, 제도 충돌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문화 충돌과 갈등 기제의 영역으로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족 가사노동자는 단순히 이질적인 나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식모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다른 지역 배경과 계층 지위를 가지고 사회 제도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족 이주여성들이 몸담았던 중국 내 조선족 사회는 70% 이상이 시골에 집거하고 있다는 점(리복순, 1994; 이해웅, 2005)에서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 온 식모들과 유사한 지역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계층 측면에서 또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식모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족 이주 여성들은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값싼 주변부 인력으로 전락한 조선족 여성이 많았으며(리복순, 1994; 이해웅, 2005) 한국의 고용주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소득 격차가 존재한다. 아래 천기선(가명)과 권유련(가명) 심층 인터뷰 내용, 그리고 조선족 커뮤니티 게시판 글은 조선족 가사노동자 여성의 고용 경험 속에서 한국 여성과의 네 가지 세계가 충돌하는 현상을

직,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전 원래 중국에서 농부를 했어요. 그래서 포부를 크게 품고 왔어요. 천국이다, 서울은 천국이다, 서울은 정말 천국이라고요. 근데 여기 서울 사람들, 우리 집주인들도 그렇고 다들 자기 성공하는 것만 생각해요. 욕심이 많아요. (중략) 가정부 하기 전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빨리해서 돈 많이 벌어야 해요. 중국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2014.04.06, 천기선(가명)].

주인집 사람들에게 상당히 잘 보이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 그게 자본주의지요. (중략) 조선족 가정부는 우선 문화 상의 이질감부터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체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고용자에게 최대한 서비스해야 한다는 사고가 미숙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지요. ... (2005.03.01, 게시판 글 '입주 가정부로 일하는 조선족 여성-2', 작성자: 한*)

위의 언급을 통해 도시생활에 대한 환멸로 대변되는 지역(region) 충돌과, 시간과 감정노동이 상품화되는 자본주의에의 경각심이라는 제도(system) 충돌을 확인할 수 있다. 천기선(가명)의 경우 식당과 요양 병원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으며 어느 일터에서도 서울 사람은 너무나 물욕이 많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었다. "서울은 천국이다"라는 언급과 같이 중국 시골에 살았던 조선족 여성에게 이주 전 상상 속의 서울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기회의 도시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처음으로 맞이한 한국의 도시 서울은 성공주의와 물신주의에 탐닉하는 세계로 비춰졌던 것이며 이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두 세계관의 치열한 충돌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충돌에 있어 그녀는 시간이 상품화되고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노동을 해야 하는 극한 자본주의 환경에 심리적인 갈등과 혼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난다. 커뮤니티의 게시 글 또한 한국을 자본주의의 나라로 정의하며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해 조선족 가정부는 최대한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었다.

한국사람들은 떠다 바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위 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래다 싶으면 무시하고 부려 먹어요. 나는 이 집에서 한 번도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 팩으로 싸서 자기들 먹을 것만 먹어요. 잘 산다고 조선족 업신여겨요. (중략) 여자 집주인 잘 살아요. 디자이너라고 그랬어요. 학교도 오래 다니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내 딸 뺄 되는 그 여자가 나보고 자기를 ‘사모님’이라고 불러 달래요. 엄마가 그러니까 애들도 자기 엄마 태도랑 똑같아요. 나보고 “할머니 너 (중국에서) 먹을 거 없으니까 여기 왔지” 이래요. 내가 뭐라 하면 “할머니 무섭다. 노동이나 해라.” 그래요. 그 집 아들은 내가 한국에서 빌어먹고 사는 줄로만 알아요[2014.05.04, 권유련(가명)].

제가 고용한 조선족 가사도우미가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여자는 서울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식당에서 단순노동만 한 거예요. 중국에서는 우유 팩을 본 적이 없는지 우유 딸 줄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팩 좀 잘라서 버리라고 했더니 글썽, 칼을 가지고 단박에 우유 가운데를 쭈셔 넣는 거예요. 조선족 사람들이 원래 칼을 좀 쓰는 문화잖아요. 하여간 우유는 팔팔 쏟아져 나오고... 연변은 팩 우유도 없고 칼 밖에 모르고[2014.04.30, 차예리(가명)].

위의 언급은 고소득, 고학력을 소유한 한국 고용주 여성과의 계층(class) 충돌과 조선족의 칼과 한국인의 우유 팩으로 대변되는 민족문화(ethnicity) 충돌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족 응답자 권유련(가명)의 경우 아들이 자신이 보내준 돈을 이용해 미주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인물이나 정작 집주인 가족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우고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자신을 하대한다는 사실에 분개하였다. 특히 다른 조선족 가사도우미와의 비공식적 인터뷰에서도 고용주와의 사소한 갈등이나 고용주의 오만한 태도가 흔히 “고소득, 고학력자의 저소득, 저학력자에 대한 으스대기”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차예리(가명)는 조선족을 고용한 한국인 여성으로 조선족의 문화를 시대적으

로 뒤떨어지는 한국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문화 충돌이 가장 큰 고민거리로 작용하고 있었다.

5. 위험한 이방인들: 조선족과 식모의 열등한 소속문화와 이중적 정체성의 형성

1) 초지역적 정박(translocal anchoring): 다른 지역에 이주한 몸, 출신 지역에 묶인 열등한 정체성

식모와 조선족 가사노동자들은 육체적으로는 기존 지역의 맥락에서 벗어나지만 그녀의 도덕성과 정체성은 떠난 사회의 특성에 묶이고 평가받는 초지역적 정박을 경험한다. 초지역적 정박은 이주자가 가진 현재의 삶의 경험(lived experience)과 이주 후 타인에 의해 규정되는 정체성이 해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파레냐스(2001)의 탈구(dislocation) 개념이 이주 가사노동자의 처지와 고용주와의 관계형성을 병리학적인 언어로 부정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의 초지역적 정박은 그들이 열등하게 규정되는 부정적인 기능을 할 뿐만이 아니라 고용주가 그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느껴 문화적으로 교육받고 보호받게 만드는 결과를 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조선족 여성들과 식모는 이주해 온 국가에서도 기존 자신의 출신지에 의해 정체성이 다시 덧입혀지고 심지어 시골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자신의 낮은 계층, 계급 지위가 고용주의 인식 속에서 과장되어 부풀려진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닻에 의해 육지에 묶여 있듯이, 식모와 조선족 여성들은 자신의 일터와 삶의 터전을 이곳으로(her) 옮기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한국인이라는 타의에 의해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이 그곳(there)에 고착되는 일상의 괴리를 경험한다. 아래는 조선족 가사노동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 고용주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지를 때 시골 지역의 낙후성, 중국 문화의 세련되지 못함, 저소득 계층의 불신성을 그 판단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여자들이 공산주의다, 평등이다, 그래서 원래 기가 세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조선족 여자도 얼마나 기가 센데요. 게다가 자격지심에 열등의식은 말도 못해요. 그건 중국인 본성이라서 고칠 수가 없어요. 아마 한국에 사는 내내 그렇게 살 거예요[2014.03.26, 손방선(가명)].

다들 무식해요. 중국 연변에서 선생님을 했었다고 자기가 그러는데 그 시골 구석에서 뭘 배우고 뭘 가르쳤었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보통 돈 180만원 받는데 결코 180만원짜리가 아니예요. 대부분 머리가 안 좋아요[2014.04.30, 차예리(가명)].

제가 중국에서 잠시 지내봐서 알아요. 중국에서도 조선족은 못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끝끝내 의문스럽게 구는 게 그들 습성이예요. 나중을 예측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예요. 아이를 맡기면 입 속에 있는 장기까지 다 빼 줄 정도로 한 다음에, 그 잃었어. 한국 사람 신뢰를 다 얻은 다음에는 도망을 가요. (중략)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100이면 100 진실성이 없는 사람들이죠[2014.04.15, 임명우(가명)].

조선족 가사노동자의 고용 경험이 있는 한국 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 “동북 3성”이라는 출신지가 가지는 계층(class), 제도(system), 민족문화(ethnicity)의 측면이 조선족의 도덕성과 정체성 자체를 판단하는 강력한 잣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조선족의 출신지역의 특색이 조선족 가사노동자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도덕 결함과 직업의식의 결손이다. 중국식 공산주의나 시골환경의 시스템의 후진성은 조선족 여성 개인의 낙후된 도덕성과 동일시된다. 손방선(가명) 응답자는 “여성은 기가 세면 안되며 열등의식은 나쁜 것” “공산주의 여자는 기가 세다” 라는 신념을 내세우며 공산주의 체제의 후진성을 조선족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결부시키고 있었다. 둘째, 지적 능력의 결핍은 조선족을 대표하는 특성으로 낙인 찍힌다. 차예리(가명) 씨는 시골에서 제공되는 낮은 수준의 교육 때문에 조선족은 필연적으로 지적 능

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도덕 잣대는 예측 불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이다. 이 특성은 낙후된 도덕성이나 지적 능력의 결핍과는 별개로 “송출국가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나온 데에 따른” 신변의 무연고성과 결합되어 조선족을 향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임명우(가명)는 조선족 가사노동자들의 예측 불가능함과 그에 수반한 위험성이 결국 조선족의 낮은 계층적 특성, 즉 중국에서 저소득층을 이루고 있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한국에 이주해 온 조선족 여성들은 필연적으로 “돈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이동하며” “예측이 불가능해 위험한 인물”이라고 묘사하였다. 특히 기존 커뮤니티로부터의 물리적 분리는 그들의 예측 불가능성과 불신을 더욱 강화하는 기제로 역할을 한다. 일례로 최근 조선족 가사노동자를 해고한 이예지(2014.06.07, 가명) 씨는 “어쨌건 중국이라는 모국에서 나온 이들이고 신분이 불량하다”는 이유 때문에 “믿을 수 없으며 애를 맡길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족 가사노동자와 유사하게 기존의 지역사회로부터 벗어나 공간적으로 재배치한 식모 집단 또한 초지역적 정박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이 과거 몸담았던 시골 지역과 자신의 낮은 계층, 계급 지위에 의해 끊임없이 정체성이 규정받았다는 점이다. 이들의 곁에는 늘 낯선 세계에 발을 든 “무지한 시골여성”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김원, 2004). 궁극적으로 이는 당시 식모를 향해 행해지던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가 사회 보호 시스템의 미비에 대한 반성을 불러 일으키기 보다는 식모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든지, 지적이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식으로 식모 개인의 책임으로 탓을 돌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낳았다. 실제 식모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인터뷰 응답자의 경우 시골 지역과 저소득층이라는 출신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식모가 도덕적으로 불손하고 지적 능력이 낮았음을 말하고 있었다. 이는 식모의 불행이 고용주의 잘못이나 국가적인 폭력 때문이 아니라 식모 개인과 식모가 몸담은 출신지의 “개인적 열등” 때문인 것으로 부당하게 기인되었던 점을 시사한다.

내가 이때까지 고용했던 다섯 명의 식모 중에 두 명이 도둑질을 하다 걸렸어.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아무래도 워낙 못살기도 했고 시골이 좀 그렇잖아. 도시 사람처럼 정확하게 네 꺼 내 꺼 없고, 그래서 손버릇이 안 좋았던 것 아닌가 싶어 [2014.06.12, 최명숙(가명)].

어느 날부터 배가 부르더니 17살인가에 아이를 낳았어. 알고 보니 아랫집 고등학생이랑 배가 맞았던 거야. (중략) 아무래도 자기 집에서 워낙 못 살고 못 배웠으니까... 임신이나, 남자들 추근대는 거나, 자기 권리나 그런 걸 뭘 알았겠어. 예구, 불쌍해 죽겠어 [2014.06.10, 김민자(가명)].

2) 위험한 이방인과 고용주: 문화적으로 교도되고 감시 받는 식모와 조선족 가사노동자

계층 차이에 의해 개인의 도덕성과 지적 능력이 평가 받는 양상은 고용주가 가사노동자를 위험에 처한 동정의 대상인 동시에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중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험한 이방인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이중적인 정체성을 내포한다. 첫째, 식모와 조선족 여성은 낮은 수준의 선진 문화 이해와 지적 능력으로 인해 잠재된 사건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처한 인물이다. 식모와 조선족 가사노동자들은 한국인 여성의 문화적 교도(敎導)와 애정이 필요하며 이는 곧 한국여성의 일상에서의 적극적인 가르치는 행동으로 드러나 왔다. 둘째, 식모와 조선족 여성은 예측 불가능하며 거리를 두며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위험이 되는’ 인물로 간주된다. 한국 여성의 인식 속에 그들은 도덕적으로 저열하고 지적 사고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자신의 소유물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된 범죄자로 비추진다. 이는 대만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노동자를 분석한 란(Lan, 2003)의 연구에서도 주목한 바 있다. 대만 고용주 여성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필리핀 가사 노동자를 위험한 인물로 규정한다. 대만 여성들은 냉장고를 분리해서 사용하거나 전자기기에의 접근을 막는 등의 공간 전략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한다.

위험에 처한, 그러면서도 위협이 되는 인물로 가사노동자가 취급되는 인식은 산업화 시대 식모 담론에서도 활발하게 재생산되었다. 당시 도시 여성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식모를 잘 감시하고 길들이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발언이나 식모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등의 대응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식모라는 이름의 여인 3태라는 기사(조선일보, 1965.08.13)에서는 식모의 전형적인 타입으로 ‘살인식모, 유괴식모, 약당식모’가 있다는 경고성이 다분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강이수, 2011). 실제 본 논문의 인터뷰에서도 시골 지역과 저소득층이라는 식모의 출신배경은 끊임없이 고용 여성에게 불신감과 감시의 필요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뷰 응답자 중 하나인 최명숙(가명) 씨는 “이때까지 고용했던 다섯 명의 식모 중 두 명이 도둑질을 했다”며 “워낙 못 살아서 아마 손 버릇이 나쁜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도덕적으로 잘 길들이고자 했다.”고 응답하였다.

이중적인 정체성 형성과 관련해 한국인 여성은 위험에 처한 인물을 위한 문화 가이드의 역할을 대행한다. 한국인 고용주들은 식모건 조선족 가사 노동자건 전혀 다른 지역 맥락에서 살아 온 그들이 도시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자(mediator) 역할도 수행해 왔다. 식모를 고용했던 김지미(가명) 씨는 자신이 식모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엇보다 그녀가 도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아래의 인터뷰 내용에서 보듯이 그녀는 그 당시 식모에게 손수 집안일을 가르치고 다 자란 이후에는 혼수를 제공하면서 그녀가 성공적으로 도시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서 혼인을 중재하는 등 개인적인 일에도 친밀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보아 식모와 고용주 사이에는 일종의 모성관계(maternalism)가 강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Arnado, 2003). 조선족 가사노동자를 고용한 한국 여성들은 소위 치열한 서울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조언하며 문화적으로 이끌고 단기 혹은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인터뷰 응답자인 조영린(가명) 씨는 한국 사회에서 불필요한 능력과 필

요한 기능을 가르쳐주며 요리실력이야말로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문화적 기술이라고 가르친다. 다만 조선족 가사 노동자들은 대개 한국인 고용주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모녀 사이와 같은 모성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식모랑 지금 한국인 파출부랑은 똑같이 생각하면 안돼. 시골 깡촌에서 온 애가 도시에서 시집갈 수 있도록 혼수도 내가 해 줬어. 도시에서 좋은 사람한테 시집가도록 내가 집안일도 가르쳐 준 셈이지[2015.02.28, 김지미(가명)].

생선이나 해삼 같은 거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생선요리를 하는 방법을 하나 하나 가르쳐 줬어요. 한국에 생선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못 먹고 지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거 모르면 사람들한테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으니까... [2014.04.15, 이주미(가명)].

우리 조선족 아줌마가 노량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문짜 만드는 걸 배우러 가요. 비자 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제가 아줌마 보고 그랬어요. “이모, 차라리 김치 한 포기 담그는 걸 배우세요.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하세요. 그게 한국에서 사는 데 훨씬 도움이 되어요.” 그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가사도우미 하는 게 훨씬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우리 나라 실정 모르니까 이렇게 매번 조언을 줘요 [2014.04.02, 조영린(가명)].

한국인 여성은 식모와 조선족 여성을 위해 문화 가이드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교육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의 교육은 단순히 직업 측면에서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교육시키고 세련되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식모를 고용했던 최명숙(가명) 씨는 “고지서 하나 읽을 줄 모르던 아이를 위해 옆에 앉아 하나하나 글 읽는 법을 가르쳐 줬다.”며 “단순히 일 더 잘하라고 가르쳐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자신이 도시의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기 때문에 일종의 “선택

받은 사람”이었다고 표현하며 좀 더 교육받은 자신이 낮은 지위의 사람을 가르치고 계몽하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표현했다. 조선족 가사노동자를 고용한 한미진(가명) 씨의 경우 재택 근무하는 여성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조선족 여성의 문화적 지도를 위한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었다. 그녀는 조선족을 위해 라면을 고급스럽게 끓이는 법을 가르칠 뿐 아니라 단어공책을 만들어서 어려운 외래어를 가르쳐 준다. 이는 이중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고용주으로써 집안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이드로써 한국에 잘 살 수 있도록 돕는다.

나는 그 당시 선택받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 (중략) 식모한테 글을 가르쳐 줬어. 내가 젊었을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해서 글은 꽤나 쓸 줄 알았거든. 시골에서 농사만 하던 아이라서 완전한 까막눈이었지만 나 통해서 많이 배웠지. 단순히 일 때문은 아냐. 배움이란 건 많을수록 좋은 것 [2015.02.28, 최명숙(가명)].

라면을 주더라도 예쁘고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아 줘요. 그 사람(조선족 가사노동자) 라면 줄 때 해물 같은 거도 넣어서 정말 중국집 찜뽕처럼 해서 주거든요. 제가 아줌마를 섬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에 살면 좀 고급스러운 것도 알아야 밖에서 멋있게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전이 없어요. 조선족 아줌마가 끓여준 라면 먹다 보면 아직 멀었거든요. “언제 가르쳐 주는 거 다 배우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2014.05.21, 한미진(가명)].

한국 고용주 여성은 위협이 되는 인물에 대항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일상에서 수행하기도 한다. 그들은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 환경이나 냉장고와 같은 음식 환경을 효율성 있게 통제하고 CCTV와 같은 기계를 이용해 그들이 도덕적으로 탈선된 행동을 하는 지 감시한다. 예를 들어 임명우(가명) 응답자는 냉장고의 구획을 나눠서 조선족이 일체 사용 불가능한 서랍장을 분류해 놨다. 그녀는 “머리가 안 좋고 요리 실력이 형편없어서 비싼 음식 재료를 다 망가뜨리기 때문

에 이 서랍장은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감시한다”며 음식 환경을 위협이 되는 인물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또한 미디어 환경에 있어서도 일부 응답자는 “그들은 게으르고 직업의식이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면 능률이 떨어진다”며 텔레비전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조선족 가사노동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도 하였다.

최근 CCTV를 이용한 24시간 감시 체계는 조선족과 한국인 고용주 사이의 갈등을 낳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었다. 예측 불가능하며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위험한 인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CCTV는 많은 한국인 여성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조선족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과잉의 감시행동으로 인지하여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식모와 비교해 많은 한국인 여성들이 감시기계를 이용해 강도 높은 감시를 하게 된 이유로는 크게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기술력의 향상을 들 수 있다. 첫째, 과거 식모를 둔 한국 여성들은 전업주부가 많아 24시간 쉽게 ‘위험한’ 그들을 감시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지속적으로 감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둘째, 기술발달로 인한 CCTV의 대중화는 한국 여성들이 손쉽게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다음 인터뷰 내용을 통해 감시기계 사용에 대한 조선족 박화영(가명) 씨의 격렬한 거부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인 이주미 씨가 CCTV 사용의 비인간성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저는 CCTV는 인간적으로 달지는 않았는데 솔직히 달고는 싫어요. 요즘 조선족 괴담이 많잖아요. 아이를 납치해갔다거나. 완전 믿을 수 없는 거 같아요. (중략) 사회주의 체제가 좀 배급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 할 일만 하고 쉬는. 제 아는 분이 CCTV를 달았는데 어느 날 글썽 조선족 아줌마가 자기 할 일만 하고 바닥에 앉아 있고 아기를 완전 방치하고 있었대요. 더 웃긴 건 아기가 그 조선족 아줌마 발가락을 막 빨고 있는데도 말리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쉬고 있더라는… [2014.04.15, 이주미(가명)].

속에 정말 열 받는 게 있어요. 사모님이 집에

CCTV를 달아 놔어요. 카메라 머리가 썩썩 돌아가는데 그때마다 진짜 성질이 욱 올라가요. 사람들은 좋으면서 그거 진짜 불편해요. 싫어요. 감시 받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한번도 싫다고 말해 본 적은 없어요. 말하고 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2014.04.06, 박화영(가명)].

6. 결론

본 논문은 초지역적 이동의 표본인 조선족 가사노동자와 식모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공간으로 재배치 한 이후에 일어나는 고용주와의 관계 설정과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본 논의의 주요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족 가사노동자와 식모는 국경이나 지역사회를 뛰어 넘는 공간 재배치를 통해 스스로의 노동 가치를 향상시켰다. 둘째, 식모와 조선족 여성의 몸은 물리적으로 고향을 떠났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정체성은 고용주에 의해 끊임없이 구 세계의 특성에 결합되는 초지역적 정박을 경험한다. 특히 식모와 조선족 가사노동자가 공유하는 공산주의 혹은 전근대적 생활방식, 시골, 중국문화, 저소득층 지위는 그들의 도덕성과 지적 능력, 신용을 저평가하는 핵심의 기제로 사용된다. 셋째, 저열하게 평가된 그들의 인격과 소속문화는 이주 가사노동자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고용주가 가사도우미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만든다. 과거의 식모와 현재의 조선족 가사노동자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위협적인 존재인 동시에, 고용자의 문화 지도와 따뜻한 동정이 필요한 위협에 처한 이중적인 인물로 정체성이 형성된다.

현재 가사 노동을 포함한 저임금 노동력을 필두로 한 이주의 여성화는 날이 갈수록 진전되고 있다. 국가와 지역간의 암묵적인 위계 평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조선족 여성과 식모의 사례처럼 저소득층의 여성들은 자신의 노동 가치를 향상시키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주의 물결에 뛰어들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두 세계 간의 충돌, 즉 시골과 도시, 공산주의식 생활양식과 자본주의 생활양식 등의 갈등과 명백히 이뤄지는 가치 평가는 그들이 필연적으로 도덕 결함과 낮은 지적 수준으로 낙인 찍히는 데에 관여할 것이다. 앞으로 이주 여성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내국인-외국인의 이분법 사고에서 벗어나 이주 가사노동자의 사회문화 상의 계층 지위에 주목하여 분석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다는 피해자 논리에 연구의 한계를 설정하기 보다는, 본국의 가사노동자건 외국인 노동자건간에 고용주와의 현격한 계층 차이가 그들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함을 이해할 때만이 이주 여성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논의는 27명의 한정된 사례 및 표본을 기반했기 때문에 국내의 전체적인 가사노동자 논의를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첫째, 식모와 조선족을 구성하는 여러 특성 중에서도 계급으로 논의를 축소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식모가 과거 한국사회에서 점했던 위치성에는 계급적 특성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갖는 젠더 관계와 나이 차이가 핵심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식모의 특수적인 상황과 위치성을 보다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사노동자 연구에 있어 집 자체의 장소감과 공간의 함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논의의 풍부성에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고용주가 거주공간으로 인식하는 집과 이주 가사노동자가 작업장으로서 생각하는 집의 의미가 서로 갈등하는 양상을 분석한다면 보다 지리학적으로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인 고용주에 의해 일방으로 규정되는 정체성에 주목했기 때문에 식모와 조선족 가사노동자가 전개하는 적극적인 저항과 협상과정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인터뷰 결과 조선족 가사노동자들이 CCTV 사용에 항의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정신의 고통을 호소하거나 쓰레기 봉투를 여러 개로 나눠서 버림으로써 자기만의 시간을 버는 전략을 취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들의 협상 전략을 심도있게 서술하기 보다는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 고용주

에 의해 결정되는 이중적 정체성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식모와 가사노동자의 적극적인 저항과 자력적인 정체성 형성 과정은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 놓았다.

참고문헌

- 김경희·강은애, 2008, “돌봄노동의 상품화를 통해 본 모성과 노동,” *담론* 201, 10(4), 71-106.
- 강진웅, 2012, “디아스포라와 현대 연변조선족의 상상된 공동체,” *한국사회학*, 46(4), 96-136.
- 강이수, 2011,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문화과학사*.
- 강이수, 2009, “가사 서비스 노동의 변화의 맥락과 실태,” *사회와 역사*, 82, 213-247.
- 김원, 2004, “근대화 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아시아여성연구*, 43(1), 181-236.
- 김원, 2005,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 이매진.
- 김은실·민가영, 2006, “조선족 사회의 위기 담론과 여성의 이주 경험 간의 성별 정치학,” *여성학 논집*, 23(1), 35-72.
- 김정화, 2002, “1960년대 여성노동, 식모와 버스안내양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1, 81-107.
- 박명희, 2008, “경제체제개혁하의 중국조선족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 *신아세아*, 15, 40-63.
- 박홍주, 2009,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젠더연구*, 69-91.
- 변혜정, 2007, “조선족 여성의 몸일 경험과 여성성의 변화 가능성,”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4(1), 111-150.
- 손여경·이송이, 2011, “일하는 엄마의 조선족이모 고용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 복지학*, 16(2), 115-144.
- 신경아, 2007, “산업화 이후 일-가족 문제의 담론적 지형과 변화,” *한국여성학*, 23, 2007.
- 이임하, 2003,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 14, 251-278.
- 이주영, 2005, “한국 내 조선족 여성 이주자의 가사 노동 경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해음, 2005,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한국 이주경험을 통해 본 주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 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혜경, 2004, “한국 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27(2), 121-153.
- 정현주, 2008,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6), 894-913.
- Akalin, A., 2007, Hired as a Caregiver, Demanded as a Housewife Becoming a Migrant Domestic Worker in Turkey,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4(3), 209-225.
- Anderson, B., 2007, A Very Private Business Exploring the Demand for Migrant Domestic Workers,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4(3), 247-264.
- Arnado, J. M., 2013, Maternalism in mistress-maid relations: The Philippine experi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Women's Studies*, 4(3), 154-177.
- Hochschild, A. R., 2000, Global care chains and emotional surplus value, in Giddens, A. and Hutton, W., *On the edge: Living with global capitalism*, Jonathan Cape, London, 130-146.
- Lan, P., 2003, Negotiating social boundaries and private zones: The micropolitics of employing migrant domestic workers, *Social Problems*, 50(4), 525-549.
- Parreñas, R. S.,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Redwood City, CA.
- Sassen, S., 2002, Women's burden: Counter-geographies of globalization and the feminization of survival, *Nordi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71(2), 255-274.
- 예문연변통신, <http://yanbianforum.com>
- 교신: 박소영,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sy90park@snu.ac.kr)
- Correspondence: Soyoung Park,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e-mail: sy90park@snu.ac.kr)
- 최초투고일 2015. 3. 4
수정일 2015. 4. 10
최종접수일 2015. 4. 11